

# 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소설교육 연구\*

- 「소나기」를 중심으로 -

박기범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try112@jj.ac.kr>



## 1. 머리말

우리나라의 국력이 상승하고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어교육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발맞춰 한국어교육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한국어교육에 관한 연구와 실천도 점점 전문화, 세련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특히 기존의 언어 습득 중심이었던 교육 형태에서 점차 문학과 문화를 중시하는 교육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경향이 값진 교육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학이 한국어교



육에서 지나는 교육적 가치와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러한 교육적 지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소설 수업을 할 때 영화를 활용하면 교육적으로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영화를 활용한 소설 수업’의 이론과 실재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나서 한국어교육에서 영화를 활용한 소설 수업이 어떤 교육적 의의를 지니는지 생각해 볼 것이다. 그런 다음, 한국어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영화를 활용한 소설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수업 모형을 구안한 뒤 실제 작품을 가지고 수업 설계의 예를 선보이도록 하겠다.

한국어교육의 문학교육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후반에 외국인을 위한 문학교육의 필요성과 의의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문학 수업의 목표, 작품 선정, 교육 방안 등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어교육이 실현되는 교육 현장에서는 문학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문학 수업을 위한 전문 교재가 부족하고, 문학교육을 위한 작품 선정이 체계적이지 않으며,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낼 만한 방법론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오지혜 2013, 270). 사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교과 교육에서 늘 제기되는 사항이며 그만큼 끊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재 진행형 과제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어교육이 당면한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에서는 문학을 한국어 습득이나 한국 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고급 수준에 이른 학습자들에게는 본격적인 한국 문학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이들 고급학습자에게는 한국의 문화와 문학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관심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국 문학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감상 활동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어교육 학습자들이 곧바로 우리 소설을 가지고 소설 읽기에 돌입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소설에 나오는 수많은 어휘들, 한국 문화 양식과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이는 소설 작품이 담고 있는 문학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제대로 향유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 글이라는 문자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의미 소통 방식이 해당 언어 체계와 규칙에 대한 문법적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독서 행위라는 실천 방식에도 엄청난 집중력과 인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어교육 학습자들에게 소설 수업은 매우 어렵고 부담스러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깊이 있고 폭넓은 소설 수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작 소설과 이를 각색한 영화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 소설 수업에서 영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논의는 근래에 많이 나왔다. 필자의 논문(2001)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학위 논문만 100편이 넘게 확인될 정도로 수많은 논문들이 제출되었다. 이들 대부분의 논문은 영상 세대인 오늘날의 학습자에게 소설 텍스트만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화를

활용하여 소설 수업을 더욱 흥미롭게 진행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설 수업에서도 영화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도 다수 나왔는데, 이기성(2003), 김경선(2004), 황인교 외(2004), 한승옥(2008)<sup>1)</sup>, 윤영(2008; 2011) 등이 대표적이다. 이 논문들은 실제 한국어교육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소설 수업 장면에서 영화를 활용하는 사례를 보여 주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업에서 다룬 작품이 적고 그 내용과 방법론이 풍부하지 못한 형편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충실하고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실천적인 연구들이 풍부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 역시 한국어교육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소설 작품을 가지고 이를 각색한 영화를 함께 활용하는 소설 수업을 구안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교육 학습자들이 원작 소설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한국 문화와 문학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up>2)</sup>

## 2.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현황과 목표

### (1)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현황

한국국제교류재단(2007)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한국학 관련 학과 및 전공이 설치된 곳은 총 55개국 632개 대학이라고 한다. 그 중 약 30% 정도에서 한국 문학과 관련된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문학 관련 강좌는 강독, 선독, 감상과 같이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의 형태를 띠는 가운데, 몇몇 대학에서는 한국 문학 개론, 문학사, 비평 등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는 특별히 ‘한국 문학과 영화’라는 과목이 주목을 끄는데, 미주 지역에서 인기리에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전 세계에 이와 비슷한 강좌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도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에 관한 연구가 점차 활발하게 진행되고

- 
- 1) 한승옥(2008)은 미국의 학생들에게 박영한의 『왕릉일가』를 가르친 경험을 통해 소설 수업에서 영화와 같은 영상 매체의 활용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주장의 근거로 든 사례가 흥미로워 소개하고자 한다. 즉 미국의 학생들은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침에 ‘맨션’에서 나와 출근했다가 저녁에 ‘까치 상회’에 들러 술 한잔하였다는 대목을 읽고는 이를 한국어 사전만 참고하여 호화 주택인 ‘맨션’에 사는 주인공이 ‘까치를 파는 가게’에 가서 술을 ‘한 잔’만 마신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여 주었더니 그제야 비로소 그 대목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한다.
  - 2)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각종 영상 매체를 통해 감상할 수 있는 허구적인 영상 서사물을 모두 아울러 ‘영화’라고 지칭할 것이다. 그래서 텔레비전 드라마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영화’로 통칭한다.

있는데, 2014년 상반기까지 약 130편이 넘는 석·박사 학위논문이 나올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실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수업 현장에서는 문학교육이 어휘, 문법, 의사소통 기능(듣기/말하기/읽기/쓰기) 수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급별로 보면 주로 4급 이상의 고급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학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때 주로 문학 작품 읽기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몇몇 대학에서는 정규 수업과는 별도로 문학 관련 특별반을 개설하여 문학 수업이 전문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황인교 외 2004). 또한 최근에 편찬된 한국어 교재를 보면 과거에 비해 초급 교재에서부터 한국 문학 작품이 많이 수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윤영 2012, 201-203).

## (2)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목표

문학은 인간 언어활동의 정수(精髓)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문학은 가장 높은 수준의 언어활동 실현태로서 언어 교육 차원에서는 최종의 교육 목표이자 대상이 되어 왔다. 그래서 일찍부터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ESL)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처음에는 기초적인 발음과 어휘에서 시작하여 문법 중심의 ‘언어(Language Art)’를 배우다가 최종적으로는 ‘문학(Literature)’을 배우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문학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와 질료 면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문학의 언어는 언어 학습에도 유용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사실은 문학 작품이 해당 문화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관용어와 속담,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 사투리 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외국어 교육에서 문학의 효용성에 관하여 콜리와 슬레이터(Collie & Slater 1987, 3-6)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첫째, 문학은 가치 있고 실제적인 자료(valuable authentic material)이다. 문학은 인간과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자료, 사회 구성원들이 실제적으로 자연스럽게 통용하고 있는 자료이다.

둘째, 문학은 문화적 풍부함(cultural enrichment)을 지니고 있다. 문학 작품은 특정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물들의 삶을 충실하게 구현한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자들은 문학 작품을 통해 해당 문화권의 다양한 문화적 산물, 제도, 관습, 규범, 가치관, 신념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문학은 언어적 풍부함(language enrichment)을 지니고 있다. 문학은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언어적 자원이다. 문학 작품에서 제시되는 어휘, 표현, 문체 등은 학습자에게 충분한 언어적 입력을 제공할 것이다.

넷째, 문학은 개인적 참여(personal involvement)를 유발한다. 문학은 본질적으로

독자 개인의 반응, 상상, 참여를 촉진한다.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학습자는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이미지나 상징을 통해 상상하며, 인물의 삶이나 화자의 생각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개별적인 문학 경험을 통해 학습자들은 개인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을 배우는 학습자들의 요구를 분석해 보면,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문학교육의 목적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한다(황인교 2001, 427). 즉 한국어 능력 수준과 한국어 습득의 실질적인 목적이 다양한 가운데에서도 학습자들은 ‘한국어 학습’, ‘한국 문화 학습’, ‘재미’를 기대하고 한국 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학습자들이 문학을 통한 즐거움의 향유를 바라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오늘날 문학교육의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문학의 대중화’, ‘대중 매체를 수용한 문학의 저변 확대’, ‘문학 소비자인 독자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교육 지향’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재미’라는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어교육에서도 더욱 흥미롭고 실감나는 문학 수업 방안의 창출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한편, 이상의 학습자의 세 가지 요구, 즉 한국어 학습, 한국 문화 학습, 재미는 외국어교육에서 나온 문학교육의 세 가지 모델과 대응되어 흥미롭다. 카터와 롱(Carter & Long 1991, 1-11)은 문학교육의 목표를 크게 언어(Language) 모델, 문화(cultural) 모델, 개인 성장(personal growth) 모델의 세 가지로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언어 모델에서는 문학 작품에 담겨 있는 언어적 자원을 통해 언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 문화 모델에서는 문학 작품 속의 문화적 배경과 정보를 통해 문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성장 모델에서는 학습자 개인의 정서적 경험을 통해 내적 발달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문학교육 모델은 우리의 한국어교육에서 수행되는 문학교육의 방향에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언어 중심의 문학교육에서는 문학 작품 속의 수많은 어휘와 문법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학 언어들이 실제적인 맥락과 양상을 통해 다채롭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교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둘째, 문화 중심의 문학교육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배경적 지식에 해당되는 의식주, 역사, 지리, 종교, 경제, 제도, 규범, 가치관, 사고방식, 예술 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고전부터 현대까지 한국 문학의 흐름에 대한 이해까지 학습할 수 있다.

셋째, 개인 성장 중심의 문학교육에서는 학습자가 문학 작품 속 인물들의 심리, 정서, 삶의 방식과 태도를 체험함으로써 개인적인 사고와 인식을 확장시켜 개인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성장시킬 수 있다.

### 3. 한국어교육에서 영화를 활용한 소설 수업의 의의

소설과 영화는 둘 다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서사(narrative)’ 예술 양식이다. 소설은 이야기를 문자 언어로 전달하는 반면, 영화는 영상 언어로 전달하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소설과 영화는 내용이 되는 이야기(story) 부분의 요소들, 즉 인물, 배경, 플롯 등은 공유하고 있으나, 표현 형식이 되는 담론(discourse) 부분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것은 소설과 영화가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이 각각 문자와 영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달 수단이 서로 다르게 되면, 그에 따라 표현 방식도 달라져 각자에게 적합한 표현 방식을 따로 마련하게 된다. 각각의 독창적인 표현 방식은 소설과 영화의 미학적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소설과 영화는 역사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 초창기 영화들은 기존의 소설에서 이야기를 많이 가져왔다. 반면에 소설을 각색하여 만들어진 영화는 다시 소설을 대중화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처럼 소설과 영화는 상호 교류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순한 소재 차원의 교류에서부터 작품의 수용과 창작, 나아가 문화 현상 전반에 이르기까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다.

소설을 영화로 바꾸는 각색은 흔히 원작을 재편성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영상화의 과정에서 원작 소설은 각색자나 연출자의 창작 의도나 영화가 구현되는 주변 여건 등의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여러 면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용(변형, 첨가, 삭제)되기도 한다.

각색 영화는 원작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나 배경에 대해 실제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장면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소설을 읽으면서 독자가 상상했던 이미지들과 영화를 통해 형상화된 이미지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이때 영화의 이미지들은 각색자나 연출자가 원작 소설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풍부한 배경 지식과 체험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독자로서 세련된 상상력을 발휘하여 원작 소설을 해석하고, 성실한 고증을 바탕으로 원작을 재구성한다. 그러므로 유능한 독자들이 상상하여 가시화한 구체적인 모습들을 한국어교육의 학습자와 같이 원작 소설의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미숙한 독자들에게 제공한다면, 한국어교육 학습자들이 작품을 수용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그동안 문학교육에서 서사 장르에 관한 내용은 소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설교육만으로는 오늘날의 다채로운 서사 문화의 총체적인 국면을 조망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공감한 필자는 문학교육의 장에서 다양한 서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용과 생산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모든 서사 장르를 포괄하는

‘서사교육’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소설과 영화를 통한 서사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박기범, 2007).<sup>3)</sup>

이러한 선행 연구의 토대 위에서 필자는 한국어교육에서도 ‘영화를 활용한 소설 수업’이 매우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문학교육의 장(場)에서 영화의 활용에 따르는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자에 의해 주장되었다. 여기서는 이들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한국어교육의 학습자에게 영화를 활용한 소설 수업이 갖는 교육적 의의를 세 가지 정도로 제시해 본다.

### (1) 영상 세대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 동기 유발

영화는 ‘영상의 시대’인 오늘날 가장 친근하고 일상적인 서사 예술이라는 점에서 훌륭한 서사교육 제재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영상 세대’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학습자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영상 매체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소설책보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며, 책방에 가는 대신 영화관이나 비디오/DVD 대여점을 찾는다.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의 대화도 그들이 감명 깊게 본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얘기가 주요한 화제가 된다. 영상 시대의 대중들은 과거 문자 매체 전성기의 대중들과는 달리 태어나서부터 영상 매체를 자연스럽게 접했고, 많은 시간 동안 함께 함으로써 영상 매체에 익숙해진 그들 특유의 인식 구조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들의 심미적 서사 체험은 책으로 된 문학 작품을 읽는 방법만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영화를 시청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영화를 문학교육의 제재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

3) 박기범(2007)에서는 ‘소설과 영화를 통한 서사교육’의 이론 체계를 세우기 위해 그 의의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해 제시하였다. 먼저 교육 내용으로는 서사문학 현상의 이해와 설명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서사 이론에서 교육적 효용도가 큰 최소한의 지식들을 절충하여 구성하였다. 소설과 영화가 서사 작품이므로 ‘이야기(story)’와 ‘담론(discourse)’으로 구분되는 서사 구조와, 서사의 소통 ‘맥락(context)’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학습 요소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교수학습 활동으로는 선정된 교육 내용을 교수·학습 과정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활동들로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이야기 영역의 지식과 활동 내용’에서는 소설과 영화의 인물, 시공간, 플롯에 관한 핵심적인 지식들을 구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소설과 영화 작품에서 이야기 영역의 공통점을 비교하는 활동을 구안하고, ‘담론 영역의 지식과 활동 내용’에서는 서술 매체, 시점과 서술에 관한 핵심적인 지식들을 구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소설과 영화 작품에서 담론 영역의 차이점을 대조하는 활동을 구안하였다. 또한 ‘맥락 영역의 지식과 활동 내용’에서는 소통-상황적, 장르적, 사회문화적 맥락에 관한 핵심적인 지식들을 구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소설과 영화 작품에서 맥락을 탐색하는 활동을 구안해 보았다. 그 다음에는 이상의 논의로 마련된 소설과 영화를 통한 서사교육의 지식과 활동 내용을 가지고 실제 작품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오발탄」, 「서편제」의 원작 소설과 각색 영화들에 대해 공통점 비교 활동과 차이점 대조 활동 및 맥락 탐구 활동의 적용 사례를 선보였다.

따라서 영화를 소설 수업에서 함께 활용하면 교육 제재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지하고 학습에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영화를 활용하여 소설 수업을 할 경우, 학습자들의 문학 수용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양수중, 2002). 이것은 소설이나 영화만을 단독으로 제공했을 때보다 학습자들이 비교와 대조를 하기 위해 이들 교육 제재들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설과 영화를 함께 활용하면 학습자들이 작품을 명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발견, 해석, 비판적 읽기를 순조롭게 진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작품을 통한 개인적 성장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자의 모든 행동은 동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신체적인 성장과 인격적·사회적 성숙, 행동의 과정 등이 모두 동기(motivation)와 관련된다. 학습 활동에 있어 동기 유발은 학습 활동에 흥미나 관심을 환기시키며 재미가 있어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화는 즉각적인 감각을 통해 전달하는 매체 소통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오늘날의 학습자들에게 친숙하고 밀접한 장르이기 때문에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 제재이다.

## (2) 배경 지식 활성화

문학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작품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성하고 활성화시키며,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R. H. Yopp 외 1996).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영화는 강력한 현실 재현력을 가지고 있어 화면을 통해 제공하는 장면이 실제의 경험과 거의 같은 것으로 지각되기 때문에 어떤 매체보다도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체험을 제공한다. 이것은 영화에서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공간적인 맥락을 시청자가 함께 경험하고 있다고 착각할 만큼, 또한 영화에 나오는 인물이 실존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을 엿보고 있다고 여길 만큼 생생한 체험인 것이다. 그러므로 영화를 통해 지각된 정보는 현실에서 체험으로 습득한 정보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이며 쉽게 사라지지 않는 스키마(schema)가 된다(박기범 2001, 87-88).

한국어교육의 학습자들이 한국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동원하는 배경 지식과 체험은 한국적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부족한 언어적·문화적 배경 지식을 보완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원작 소설에 나오는 인물의 모습이나, 배경으로 삼은 풍경, 그리고 제도와 풍속과 같은 시대상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영화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실제 한국어교육 학습자들에게 영화를 활용해서 소설 수업을 한 결과 86.7%의 학습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들이 영화 활용의 유용성으로

꼭은 이유가 소설 속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여 소설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였다(윤영 2011, 131-139).

### (3) 작품 수용의 심화와 확장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작품에서 얻은 감동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적절한 읽기 후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R. H. Yopp 외 1996). 소설에서 얻은 정보를 잘 조직하고, 이해를 확장시키며, 개인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읽기 후 활동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로 원작 소설과 각색 영화를 심도 깊게 비교·대조하는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들은 감명 깊게 읽었던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과연 영화는 어떻게 소설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을까 궁금히 여기며 영화를 찾아보곤 한다. 반대로 어떤 영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고 나서, 그 영화의 원작 소설을 구해 읽으며 감동의 울림을 더하려 했던 경험도 있다. 또한, 친구들과 더불어 원작 소설과 영화를 비교 분석하면서 서로의 감상을 나누며 토론하는 가운데 작품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는 경험도 해 보았다. 그 같은 체험을 문학 수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학생들의 실제적인 문학 체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문학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원작 소설을 각색하여 만든 영화는 그 변용 과정에서 많은 적든 원작과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러한 차이는 원작을 각색하여 대본으로 만드는 과정과 이 대본을 통해 연출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야기 구성 요소의 변이는 영화 창작자의 주제 의식이나 의도 혹은 주변 여건의 변화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서사 전달 구조의 변이는 문자와 영상이라는 각각의 매체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원작 소설과 이를 각색한 영화를 서로 비교·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들 사이의 변이 양상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소설과 영화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더욱 깊고 넓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 4. 영화를 활용한 소설 수업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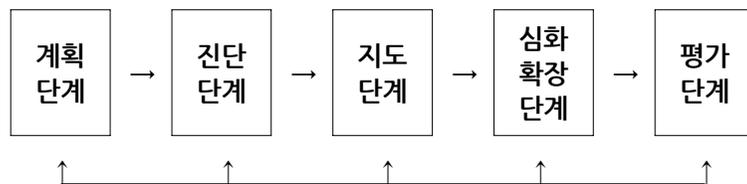
영화를 활용한 소설 수업에서 가르칠 학습 내용 요소는 소설과 영화가 서사 양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작 소설과 각색 영화의 내용과 형식, 즉 이야기(story)와 담론(discourse)

부분을 상호 비교대조하는 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원작 소설과 각색 영화의 ‘이야기 비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두 작품에 나타난 인물, 배경, 플롯에 관하여 비교해 본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원작 소설과 각색 영화의 ‘답론 대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두 작품의 서술 매체와 시점 및 서술에 관하여 차이점을 중심으로 대조해 본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sup>4)</sup>

[표 1] 영화를 활용한 소설 수업의 학습 내용 요소

활동	내용요소	소설	영화
이야기 비교 활동	인물	인물	인물(연기, 분장, 의상)
	배경	시공간	시공간(장소, 소품)
	플롯	사건, 구성	사건, 구성
답론 대조 활동	서술 매체	문자	영상과 음향, 자막
	시점과 서술	서술자의 시점과 서술	카메라의 앵글과 움직임, 조명, 편집

본 연구에서는 영화를 활용한 소설 수업의 모형으로 구인환 외(2013, 233)에서 제시한 문학 제재 수업의 일반 절차 모형을 재구성해 보았다. ‘계획 단계→진단 단계→지도 단계→평가 단계→내면화 단계’로 구성된 구인환 외(2013)의 모형은 우리나라 문학교육학계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수업 모형 중 하나로서 한국어교육의 문학 수업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아직까지 마지막의 내면화 단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 본 연구에서는 그 단계를 생략하고, 대신 지도 단계 이후 학습자의 이해를 심화확장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그림 1] 영화를 활용한 소설 수업의 모형

4) 각 활동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은 본고의 5장 (2) 수업 단계별 세부 내용의 ④와 ⑤ 항목에서 제시함.

계획 단계에서는 수업 목표와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제재들을 분석 및 재구성하며, 참고 자료들을 선정하여 교수학습을 설계한다. 이때 원작 소설에 가장 적절한 각색 영화를 선정하고 감상의 순서와 시간 배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계획한다.

진단 단계에서는 한국어교육 학습자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심미적 영역의 수준에 대해 진단하여, 교육 제재에 나타난 언어(어휘나 문법), 문화(생활, 정신, 제도) 등에 대한 배경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보충해 준다.

지도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교육 제재로 선정한 원작 소설과 각색 영화에 대해 감상하면서 작품 이해를 위한 학습 활동을 전개한다.

심화·확장 단계에서는 원작 소설과 각색 영화의 이야기 비교 활동 및 답론 대조 활동 등을 통해 두 제재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학습하는 활동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학습자들이 작품에 대해 비평문을 작성하거나 새로운 작품을 재구성 또는 창작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수업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자기 스스로 평가하거나 동료들의 활동을 평가하거나 교사의 형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한다.

물론 실제 수업에서는 이상의 수업 단계와 학습 내용이 학습자나 수업 환경 등의 변인에 알맞게 적절히 변형·적용될 수 있다.

## 5. 영화를 활용한 소설 수업의 실제

### (1) 수업의 개요

① 학습 대상: 한국어능력시험(TOPIC) 5급 이상 학습자

② 학습 시간: 8차시

③ 학습 목표:

- 원작 소설과 각색 영화의 이야기 내용 요소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원작 소설과 각색 영화의 이야기 내용 요소를 비교하여 말할 수 있다.
- 원작 소설과 각색 영화의 이야기 내용 요소상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 원작 소설과 각색 영화의 답론 형식 요소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원작 소설과 각색 영화의 답론 형식 요소를 대조하여 말할 수 있다.

- 원작 소설과 각색 영화에 대한 감상문(비평문)을 작성할 수 있다.

#### ④ 학습 제재

- 소설 작품: 황순원(1915~2000)의 단편소설 「소나기」로 1953년 『신문학』 5월호에 발표되었다. 이 소설은 그동안 수차례의 교육과정 개편에도 불구하고 반세기가 넘도록 계속해서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정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작품이다. 현재에는 한국어교육의 교재에도 많이 수록될 정도로 대표적인 한국 현대 소설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짧은 분량, 간결한 문체로 한국어교육 학습자에게 비교적 부담이 적은 편이며, 한국적인 문화가 많이 배어 있고,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주제가 인류 보편적인 관심 사항이라는 점에서 한국어교육에서도 그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작품의 출전은 현대 표기법에 따라 고치고 원전의 내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충실하게 다듬어졌다고 판단하여 『중학교 국어 2-1 교과서』(윤여탁 외 2011)에 수록된 작품 전문을 바탕으로 하였다.
- 영화 작품: 2005년 5월 8일 KBS HDTV문학관으로 방송된 텔레비전 드라마 「소나기」를 활용하였다. 황순원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염일호 작가가 각색하여 극본을 만들고 고영탁 프로듀서가 연출을 맡아 창작된 90분짜리 단막극이다. 사실 「소나기」는 여러 차례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되었는데<sup>5)</sup> 이 작품을 학습 제재로 선정한 이유는 다른 작품들보다 최근에 제작되어 화면이 깨끗하고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작품에 접근하기가 쉬우며 무엇보다 제작진들이 밝힌 ‘제작 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대한 원작 소설에 가깝게 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sup>6)</sup>

5)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작품 외에도 황순원의 「소나기」를 각색한 작품으로는 1978년 고영남 감독이 연출한 영화와 1987년 최중수 PD가 연출한 MBC 베스트셀러극장(10월 4일 방송) 텔레비전 드라마가 있다.

6) HDTV문학관 홈페이지(<http://www.kbs.co.kr/drama/hdtv/sonaki/>)에서 밝힌 제작진의 ‘제작 방향’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TV문학관〈소나기〉는 황순원 〈소나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작품이 쓰여진 시대의 정서를 같은 질감의 소재를 활용, 최대한 복원코자 노력할 것이다. (...생략...) 또한 소설 속 이미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①외로움 ②순수 ③만남과 헤어짐의 상징성 등을 작품 속에 용해시켜 담아내고자 한다. 특히 개울가상황, 즉 소년이 소녀를 만나는 순간부터 설레임, 다가가는 마음, 열린 마음, 사랑 그리고 소녀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까지 두 아이의 심리 변화를 묘사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아울러 소년소녀의 동선을 쫓는 과정에서 향토적 서정성을 담아낼 수 있는 영상에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⑤ 수업 차시별 학습 내용

차시	학습 내용	학습 활동	단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목표 및 방법 안내</li> <li>■ 배경 지식 진단 및 보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낯선 어휘, 용어, 구절 학습</li> <li>• 한국 문화 학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에 대한 소개</li> <li>· 문학교육적 가치 환기</li> <li>▷ 기초 학습</li> <li>· 사진, PPT, 학습지 활용</li> </ul>	진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설 학습 1</li> <li>• 발단-전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읽기 전: 배경 지식 활성화</li> <li>▷ 읽기 중: 모듈별 활동(학습지)</li> <li>▷ 읽기 후: 발표 및 토의</li> </ul>	지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설 학습 2</li> <li>• 위기-절정-결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읽기 전: 배경 지식 활성화</li> <li>▷ 읽기 중: 모듈별 활동(학습지)</li> <li>▷ 읽기 후: 발표 및 토의</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학습 1</li> <li>• 발단-전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기 전: 배경 지식 활성화</li> <li>▷ 보기 중: 모듈별 활동(학습지)</li> <li>▷ 보기 후: 발표 및 토의</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학습 2</li> <li>• 위기-절정-결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기 전: 배경 지식 활성화</li> <li>▷ 보기 중: 모듈별 활동(학습지)</li> <li>▷ 보기 후: 발표 및 토의</li> </ul>	
6	■ 소설과 영화 비교 및 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별 활동(학습지)</li> <li>▷ 발표 및 토의</li> </ul>	
7	■ 비평 및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모듈별 활동(학습지)</li> <li>▷ 발표 및 토의</li> </ul>	심화 확장
8	■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평가/동료평가</li> <li>▷ 질의/응답</li> <li>▷ 피드백</li> </ul>	평가

### (2) 수업 단계별 세부 내용 및 활동

#### ① 제재에 대한 배경 지식 진단 및 보충 활동

원작 소설과 각색 영화 두 교육 제재에 들어 있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진단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한다. 학습은 사진, PPT, 학습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퀴즈, 마인드맵, 퍼즐 맞추기, 선긋기, 사전 찾기 같은 활동을 한다. 다음은 「소나기」에서 한국어교육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어휘 목록이다(김정자 2014, 96-106).

- ◎ 생활문화: 소매, 무명 겹저고리, 앞자락, 잠방이, 나들이옷, 벼, 차미, 얼룩 수탉, 원두막, 기둥, 지붕, 외양간

- ◎ 언어문화: 윤 초시, 증손녀, 증손, 증조할아버지, 목덜미, 단발머리, 미간, 보조개, 검게 탄, 보랏빛, 검붉은, 쪽빛, 팔짝팔짝, 오순도순, 선뜻선뜻, 갈래갈래, 갈갈, 까무룩, 남의 손에 넘기다, 손을 잠그다, 그림자가 비치 않다
- ◎ 정신문화: 자식 복, 악상, 제사, 여자 반
- ◎ 지리·지형: 개울가, 소나기, 전답, 양평읍, 기슭, 징검다리, 독, 조약돌, 갈밭머리, 디딤돌, 밭, 마장, 리, 벌, 논, 사이길, 텃논, 도랑, 산마루, 골짜기, 먹장구름, 비안개, 도랑, 흙탕물, 진흙물, 서당골, 근동
- ◎ 기타: 요행, 날쌔게, 허탕, 청량한, 움키다, 찝찝하다, 여태, 소풍, 허수아비, 대강이, 양산, 상기되다, 동무, 생채기, 송진, 코뚜레, 고삐, 바투, 수숫단, 비를 굶다, 별나게, 망태기, 열었다, 잔망스럽다

## ② 소설 학습 활동

읽기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의 영향을 받아 성공적인 읽기(독서)를 위해서는 ‘읽기 전·읽기 중·읽기 후의 과정별로 여러 가지 학습 전략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최미숙 외 2012, 225). 따라서 최근에는 문학 독서를 비롯한 모든 독서 프로그램에서 이와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읽기 전략을 구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소설 제재에 관한 본격적인 학습 활동에서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의 세 단계로 나눠 교수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안하였다.

읽기 전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제재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문을 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시킨다. 예컨대 제목 ‘소나기’의 느낌, 소나기 맞은 경험, 삽화를 통한 내용 추측 등에 대해 서로 얘기를 나눠본다. 또한 작가 소개 및 작품의 교육적 가치나 문학사적 위상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좋다.

읽기 중 단계에서는 소설 제재를 같이 읽으면서 학습지에 제시된 발문에 답을 찾아보도록 한다. 이때는 작품 자체의 내용과 형식에 집중하여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반세기가 넘게 교과서에 수록된 덕분에 그동안 소설 「소나기」에 관한 학습 활동은 많이 개발되었다. 그중에서 필수적인 몇 가지 사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줄거리 요약하기, 이야기 내용 확인하기, 사건의 흐름 정리하기, 소년과 소녀의 성격(심리) 알기, 인물들의 행위(소년이 징검다리 건너지 못함, ‘이 바보’라는 소녀의 말, 소년의 조약돌 만지기, 소년이 먹던 무를 더 멀리 팽개쳐 버림, 송아지 타기, 쇠잔등 갈기, 소녀의 유언)가 갖는 의미 알기, 소년의 태도 변화 확인하기, 소재(조약돌, 칩덩굴, 보랏빛, 먹장구름, 망그러진 꽃뭉음, 스웨터의 진흙물, 대추, 호두)의 상징성 알기, 시공간적 배경의 의미 알기,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의 상징성 알기, 제목의 의미 알기, 간결한 문체의 효과 알기, 시점 및 서술 알기, 주제 알기

읽기 후 단계에서는 읽기 중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는 활동을 한다. 서로의 의견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 듣기·말하기 활동과 통합할 수도 있으며, 작품에 대해 자신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바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sup>7)</sup>

### ③ 영화 학습 활동

영화에 관한 학습 활동 역시 영화 보기 전-중-후 세 단계로 전개하는 것이 좋다. 영화 보기 전에는 영화 포스터나 주요 장면 사진을 보고 느낌을 말하거나 영화 제작진과 배우진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게 한다. 본격적인 영화 보기 단계에서는 영화 전체를 함께 시청해도 좋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에는 원작 소설과 관련성이 높은 부분만 편집하여 시청한다. 영화를 감상할 때도 유의해서 봐야 할 점들을 학습지에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감상을 돕는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영화 제재의 주요 장면(scene)의 사진과 내용, 그리고 해당 장면에서 해야 할 학습 활동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면 번호	공간	주요 장면 사진	설명	학습 활동
15	냇가		소녀가 징검다리 가운데 앉아 물장난을 하고 있고 소년이 건너지 못하고 멀리서 몰래 보다가 우편 배달부가 오자 뒤따라 건넌다. 소년은 소녀의 빨간 구두와 비교되는 자신의 검정 고무신이 부끄러워 도망간다.	소설에 나온 개울과 징검다리가 실제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자. 빨간 구두와 검정 고무신을 비교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22	냇가		징검다리에서 물장난을 치는 소녀, 소년이 건너지 못하고 멀리서 수제비 뜨기를 하고 있는데 소녀가 '이 바보' 하고 조약돌을 던진다. 소년이 이 조약돌을 줍는다.	소년이 부끄러워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26	냇가		소년이 징검다리에서 소녀가 하듯이 물장난을 치다가 소녀를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다가 물에 빠지고 고무신 한 짝을 잃어버린다.	소년의 모습과 소녀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자.

7) 본고에서는 소설 「소나기」에 관한 구체적인 학습 활동 내용은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그동안 교육적으로 많이 활용된 작품이기 때문에 시중의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그 내용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장면 번호	공간	주요 장면 사진	설명	학습 활동
40	논두렁		논두렁을 뛰어가는 소년과 소녀. 소년이 참새를 쫓고 허수아비 흉내를 낸다. 소녀가 산으로 함께 가 보자고 한다.	한국의 가을 농촌의 모습 (허수아비, 참새)을 살펴보자.
41	산 중턱		원두막을 지나 수박을 먹고 싶다는 소녀에게 소년이 무를 뽑아 와서 건네주고 자신도 한 입 베어 문다. 소녀가 맵고 아리다며 뱉자, 소년도 맛있어서 못 먹겠다며 무를 던져버린다.	무를 베어 먹는 모습과 던져버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45	산 정상		나란히 앉아 있다가 소녀가 바위틈의 꽃을 꺾으려다 미끄러져 다친다. 소년이 소녀의 상처를 입으로 닦아주고 승진을 불러준다.	소년이 소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행위들을 살펴보자.
47	산 정상		소년이 꽃다발을 들고 오자 소녀가 기뻐하며 꽃 이름을 물어본다. 소녀는 도라지꽃의 보랏빛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도라지꽃의 보랏빛을 확인해 보고 색깔이 주는 느낌도 생각해 보자.
48	먹구름 산		소나기가 내리자 소년과 소녀가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간다. 소년은 들꽃을 떨어뜨리고 원두막에 들어간다.	원두막의 모습을 확인해 보자.
49	원두막		소녀가 추워하자 소년이 옷을 벗어준다. 원두막에 비가 새자 소년이 수숫단 안에 자리를 마련하고 소녀를 부른다.	수숫단의 모습을 확인해 보자.
50	수숫단 안		소녀를 수숫단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소년은 밖에서 비를 맞는다. 소녀가 들어오라고 하자 소년이 소녀 옆에 앉는다. 소녀는 엄마가 떠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며 어릴 때 돌아가신 아빠의 좋은 냄새가 지금 난다고 한다.	수숫단 안의 분위기와 느낌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자.

장면 번호	공간	주요 장면 사진	설명	학습 활동
53	넷가		빗물에 불어난 넷가를 소년이 소녀를 업고 건넌다.	업고 건널 때의 소년과 소녀의 표정과 연기를 평가해 보자.
63	윤 초시 댁		윤 초시가 대추나무에서 대추를 따다가 소녀가 나오자 소녀에게 대추를 주며 맛있는 것을 보면 좋은 사람이 생각나는 법이라고 말한다.	대추 따는 장면은 소설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영화에서 만든 이유를 생각해 보자.
64	넷가		소녀가 그동안 아파서 학교에 못 갔다고 한다. 얼룩진 스웨터를 보여주고 그날 소녀에게 얽혀 도랑을 건널 때 웅은 것이라고 말하며 대추를 준다. 소녀는 곧 이사 갈 예정이라고 말한다.	얼룩진 분홍 스웨터를 확인해 보고 소녀가 아픈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 보자.
65	소년 집		아버지가 닭장에서 닭을 꺼내며 윤 초시 댁 제사에 간다고 말하자 소년이 소를 만지며 웃는다.	소설에서는 겹언쩍어 하며 쇠잔등을 갈기는 것이 영화에서는 웃으며 소를 만지는 것으로 바뀐 이유를 생각해 보자.
72	소년 방		소년이 누워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얘기를 나눈다. 윤 초시 댁 증손녀가 죽었는데, 그녀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물어달라고 했단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를 누워서 듣고 있는 소년의 심정을 생각해 보자.
78	소년 방		소년이 아파서 누워 있고 어머니가 간호한다.	소설에 없는 대목을 영화화 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79	소년 집 마당		소년의 아버지가 불을 지피면서 윤 초시 댁 초상을 잘 치렀다고 말한다. 어머니가 윤 초시와 소년을 걱정하자 아버지는 애들은 아프고 나면 몸도 마음도 알아서 자라는 거라고 말한다.	소설에 없는 대목을 영화화 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 ④ 심화 활동: 소설과 영화의 이야기 비교

학습자들이 소설과 영화의 이야기 구성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 먼저 개인별로 학습지를 통해 공부를 한 다음, 다 함께 모여서 토의하면서 정답을 정리하고 공유하도록 한다. 다음은 이야기 구성 요소인 인물, 배경, 플롯에 대해 소설과 영화 제재를 비교 하는 학습 활동의 예이다(박기범 2001, 90-102).

##### <인물>

- 소설을 읽으며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그리고 영화에서 그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 소설에서 인물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 대목을 찾아보자. 그리고 영화에서 그 인물의 외모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말해 보자.
- 소설을 읽으면서 인물에 대해 상상했던 것과 영화에서 보여 주는 인물의 모습을 비교하여 말해 보자.
- 영화의 인물묘사 중에서 원작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말해 보자.
- 소설에는 없지만 영화에서 보이는 인물을 찾아보고, 그 인물을 새롭게 설정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 위와 반대로 소설에는 있는 인물이 영화에는 나타나지 않는 인물은 누군가 찾아보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 소설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인물들의 외모, 버릇, 어조나 말투 등을 영화를 감상하면서 확인하여 비교해 보고,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 평가를 해 보자.
-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이 변화했다면 영화에서도 그것이 잘 표현되었는지 말해 보자.

##### <배경>

- 소설을 읽으며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그리고 영화에서 그 배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 만약 소설의 배경이 영화에서 다르게 설정되었다면, 이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해 보자.
- 자신이 배경에 대해 상상했던 장면과 영화에서 보여 주는 배경을 비교하여 말해 보자.
- 영화의 배경 묘사 중에서 원작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말해 보자.
- 소설을 읽으면서 배경에 대해 미처 몰랐던 부분을 영화를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 보자.

### 〈플롯〉

- 소설의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영화에서 생략된 부분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 소설에는 없는 사건이 영화에 설정되었다면 그것을 설정한 이유를 말해 보자.
- 소설과 영화의 사건의 순서가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해 보자.

이러한 학습 활동을 거쳐 원작 소설과 각색 영화의 이야기 부분에 대해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화에서는 원작 소설에 나오지 않는 인물이 여럿 등장한다. 이것은 「소나기」와 같이 짧은 분량의 소설을 각색할 경우 90분의 긴 상영 시간을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더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채워 줄 인물도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의 대화에서 언급만 되던 이도 영화 장면에서는 실제로 등장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영화에서는 특히 재가(再嫁)하는 소녀의 어머니가 윤 초시 댁에 딸을 맡기로 온다는 설정으로 인해 소녀의 어머니가 영화 시작 부분에 등장한다. 또 윤 초시 댁의 식모 양평댁이 등장하는데 그녀는 새침한 소녀를 상전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대중가요에 맞춰 춤을 추는 등 익살맞고 활달한 농촌 아낙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교 운동회에서 부재중인 소녀의 어머니 대신 경기에 참가하거나 소녀가 아플 때 정성껏 간호해 주는 모습에서 불평을 늘어놓으면서도 속정이 깊은 시골 아주머니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다만 영화의 대중적인 재미를 위해 설정한 춤추는 장면은 전체적인 영화의 서정적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아 어색했다는 소감도 있었다.<sup>8)</sup> 또 새로 추가된 인물 중에는 장 씨가 있는데 그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다. 원래 윤 초시 댁에서 대대로 머슴을 살았던 집안의 자식이었지만 한국전쟁을 겪으며 수완을 발휘하여 돈을 많이 벌었고 지금은 몰락한 윤 초시의 저택을 사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는 과거 봉건사회에서 상전으로 모시던 윤 초시 댁에 계급적 대항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윤 초시 댁에서 소작인으로 살고 있는 소년의 아버지를 ‘충전’에 비유하며 비난한다. 이와 같은 인물의 설정 역시 단편적인 원작 소설에 대중적인 재미를 가미하기 위해 사회 변화에 따른 계급적 갈등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주요 갈등 모티프를 활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소년을 짝사랑하는 같은 반 친구 봉순이의 설정도 삼각관계를 통한 멜로 드라마적 요소를 가미하여 영화의 재미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정덕재 2006, 164).

한편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소년과 소녀의 역할을 맡은 두 배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원작 소설 속 인물들의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훌륭히 연기해 주었다. 표정, 말투, 동작,

8) HD TV문학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청자 소감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지적과 불만이 적지 않았다.

분장, 의상 등도 모두 작품의 분위기와 주제에 맞게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 두 배우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연기자들이 지금도 인기리에 방송되는 여러 작품에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호응이 좋은 편이다.

원작 소설은 1950년대의 어느 가을, 산과 개울이 있고 허수아비, 소, 원두막, 수숫단, 논밭과 메밀밭이 있는 전형적인 농촌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영화도 이러한 시공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에서 촬영을 하였다. 특히 시간적 배경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시골 장터나 학교 운동회 장면을 자세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특히 고화질 영상으로 방송되는 HDTV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이 작품에서는 우리나라 농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양한 앵글로 담아 매우 깨끗한 화면으로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플롯의 변화도 많았는데, 이 역시 짧은 원작 소설의 이야기를 확대하기 위해 몇 가지 일화들을 첨가했기 때문이다. 추가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윤 초시가 재가하는 손주 며느리를 냉담하게 내보내고 증손녀를 손자의 무덤에 데려가서 참배하게 하는 장면, 아이들이 돼지 오줌보로 만든 공으로 축구하는 장면, 숙제 검사를 받는 장면, 소년이 어머니에게 까만 피부와 손톱의 때에 대해 묻는 장면, 학교 운동회 장면, 학교 우물가에서 소녀에게 물을 떠주는 장면, 소년이 부끄러워 도망가다 고무신을 잃어버리는 장면, 장터 장면, 신발 가게에서 구두를 보고 소녀 앞에 자랑스럽게 구두를 신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을 하는 장면, 장터에서 윤 초시가 장 씨를 만나 봉변을 당하고 소년의 아버지와 장 씨가 싸우는 장면, 소년과 소녀가 각자의 신을 벗고 맨발로 낙엽을 밟는 장면, 돌탑에서 각자의 소원을 비는 장면, 윤 초시가 아픈 소녀를 업고 의원을 찾아가는 장면, 읍내 다방에서 복덕방 주인의 중개로 윤 초시의 집이 장 씨에게 팔리는 장면, 윤 초시가 대추를 따서 소녀에게 주는 장면, 소년이 윤 초시 집에 가서 소녀가 학교에 안 오는 이유를 묻는 장면, 소년이 돌탑에 쌓을 돌을 줍다가 고무신 한 짝을 잃어버리는 장면, 소년이 윤 초시 떡 대문에 걸린 근조(謹弔) 등을 보고 우는 장면, 소년이 돌탑을 무너뜨리고 아파하는 장면, 소년의 어머니가 소년을 간호하고 소년의 아버지가 위로하는 장면, 소년이 나아서 지계를 지고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조약돌을 꺼내보는 장면.

한편 이와 반대로 원작 소설에 있는 사건 중 영화에서는 생략된 인물의 행위나 사건은 다음과 같다. 소년이 메밀밭 사이로 도망치다가 코피를 흘림, 메뚜기가 얼굴에 부딪치고 독수리가 하늘을 맴돌고 있는 것이 어지러움, 소년이 송아지를 탐, 농부가 소나기가 온다며 집에 가라고 함, 덕쇠 할아버지 호두밭에서 서리를 함.

이상의 플롯상의 변화는 원작 소설을 각색하는 과정과 실제 촬영하는 과정, 혹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영화 창작자의 기획 의도, 주제 의식에 따라 선택배열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플롯상의 변화 중에 눈여겨 볼만한 것으로 먼저 소년의 감정 고무신을 통한 상징성 부여 장면들이다(안남일 2007, 220-221). 소년은 세련된 소녀의 빨간 구두에 대비되는 자신의 찢어진 감정 고무신이 부끄럽기만 하다. 마치 대대로 마을에서 위세를 떨치던 반갓집 증손녀인 소녀와 그 집 소작인의 아들인 소년의 신분상의 차이를 상징하는 이 소재는 이들이 신분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친해졌지만 소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이 끝이 나는 이들의 운명을 대변하기도 한다. 소녀 앞에서 부끄러워 도망치다 고무신을 잃게 되자 아버지가 새 고무신을 사주었지만, 소년은 새 고무신 대신 소녀가 찾아서 수선해 준 고무신을 신음으로써 소녀의 호의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신발을 벗어 들고 맨발로 낙엽을 밟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신분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일체감을 형성한다. 하지만 소녀가 죽는 날 다시 소년은 고무신 한 짝을 잃어버린다. 이로써 소녀의 죽음과 두 사람의 영원한 이별이 암시된다.

또 각색 영화에서는 1950년대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면을 삽입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장터와 학교 운동회를 재현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어린 시절 동심의 세계를 환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화에서는 소설보다 소년의 슬픔을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소녀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윤 초시 댁으로 달려가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소년은 문 앞에 걸린 등을 보고 망연자실해 하고, 돌탑을 무너뜨리며 울부짖고는, 신열로 앉아눕는다. 소설에는 없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 소년의 아픔을 자세히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이 소년의 슬픔에 감정이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에는 성장소설로서의 원작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영화에서는 “너무 걱정 말어, 애들은 한번 앓고 나면 몸이건 맘이건 지들이 알아서 다 자라기 마련이여.”라는 소년 아버지의 대사를 통해 소년이 겪은 슬픔이 유년기를 벗어나는 통과 의례적인 아픔이라고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심화 활동: 소설과 영화의 담론 대조

학습자들이 소설과 영화의 표현 방식과 원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 먼저 개인별로 학습지를 통해 공부를 한 다음, 다 함께 모여서 토의하면서 정답을 정리하고 공유하도록 한다. 다음은 소설과 영화의 서술 매체 차이로 인한 시점과 서술상의 차이에 대해 대조해 보도록 하는 학습 활동의 예이다(박기범 2007, 103-104).

- 소설과 영화에서 서술자는 누구인지 말해 보자.
- 소설에서 시점이 변화되는 부분을 찾아보자.
- 영화에서 각 쇼트(shot)의 화면은 누구의 시점인지 말해 보자.
- 영화의 각 쇼트들 중 인물의 시점으로 된 것을 찾아보자.

- 소설의 요약 서술된 이야기 내용과 장면 제시된 이야기 내용을 영화에서는 각각 어떻게 표현하는지 말해 보자.
- 영화에서 카메라의 위치/이동/앵글에 주목하고 그렇게 촬영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 영화의 음악과 음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 음악의 느낌이 어떤지 평가해 보자.
- 영화의 조명에 대해 평가해 보자.
- 영화의 편집에 대해 평가해 보자.
- 소설의 내용을 영화가 잘 표현했는지 평가해 보자.

소설 「소나기」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간결한 문체, 이미지와 상징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한국어교육 학습자들도 이 소설의 간결한 문장과 향토성 짙은 어휘들에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다(김영옥 2012, 461). 또 소설에서는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에 따라 일곱 개의 에피소드가 한 행을 띄움으로써 형태상으로도 구분된다. 각 단락은 대부분 시간을 알리는 표지어로 시작되는데, 이러한 시간의 경과로 인한 구분은 영화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장면의 구분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소설은 서술자의 존재를 거의 느낄 수 없다. 서술자의 생각이나 목소리는 거의 노출하지 않고 단지 서술자의 시점으로 혹은 소년이나 소녀의 시점에서 관찰된 것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을 뿐이다. 이를 두고 ‘카메라-눈’ 기법을 통한 ‘보여주기’로 이야기를 서술해 나간다고 설명하기도 한다(김중철 1997). 즉 황순원의 「소나기」는 이야기 전달 방식을 카메라의 작동과 편집과 같은 영화의 기법에서 차용하여 마치 영화를 보듯이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소설은 영화로의 변용이 비교적 쉬웠는지도 모른다.

영화 「소나기」는 영화의 영상적 특성과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다양한 카메라 앵글과 움직임으로 인물과 시공간을 화면에 담았고, 인물의 심리와 행동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효과적인 촬영과 편집 기법을 다채롭게 동원하였다. 일례로 엄미와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소녀를 소년이 처음 보는 장면에서 소년의 시선으로 세련된 도시 소녀의 모습과 행동을 천천히 클로즈업함으로써 소녀에 대한 소년의 관심과 부러움을 잘 나타내 주었다. 또 윤 초시 댁의 위세를 보여 주기 위해 크레인을 동원하여 넓은 고택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쇼트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소녀에게 발각되어 부끄러운 나머지 허둥지둥 메밀밭을 가로지르며 도망치는 장면을 롱 쇼트로 잡아서 소년의 심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동시에 메밀밭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질주하는 소년의 모습을 멀리서 잡아 보여줌으로써 소년의 순수한 마음이 서정적인 영상과 함께 아름답게 형상화되도록 하였다(안남일 2007, 221). 그리고 마지막에 눈 내리는 날 개울을 건너며 징검다리에서 조약돌을 꺼내 보는 소년의 모습에서 서서히 줌 아웃하면서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 깃든

개울가와 징검다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도록 하여 소녀와의 추억을 간직한 채 겨울을 지나 새봄을 기약하듯이 소년이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담은 장면으로 영화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도 효과적인 영상 표현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영화의 조명도 그때그때의 장면이 갖는 의미와 분위기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데, 가령 떡장구름이 몰려와 곧 소나기가 퍼부을 것 같은 장면에서도 야외임에도 불구하고 조명을 적절히 사용하여 갑작스런 날씨 변화를 잘 표현해 주었다. 또한 소년이 방에서 자다가 어렴풋이 부모의 대화를 듣는 장면에서는 건넌방의 부모들을 실루엣으로 처리한 반면 어두운 방에 누워서 이들의 대화를 듣는 소년은 매우 어둡게 처리함으로써 소년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주었다.

#### ⑥ 확장 활동

원작 소설과 각색 영화에 대한 비교 및 대조의 심화 활동이 끝나면 이어서 소설과 영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장시키는 활동을 전개한다. 이는 최근 문학교육에서 강조하는 문학 ‘생산 활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작품에 대한 수용 활동 즉 이해와 감상 위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음악이나 미술과 같이 제재의 내용이나 주제와 관련된 다른 예술 양식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작품에 관한 이해를 확장시키거나, 감상문(비평문)을 작성하거나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등을 하거나, 이후에 전개될 상황 상상하기, 결말 다시 쓰기, 소설을 영화 대본으로 바꿔 쓰기, 소설을 자기 모국어로 번역하기 등과 같은 재구성 및 창작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또한 작품에 나타난 한국 문화를 모국의 문화와 비교해 보는 글을 쓰게 하거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인물의 발화를 소개해 보는 것도 감상의 확장으로서 한국어교육 학습자들이 해볼 만한 활동들이다. 다음은 「소나기」와 관련된 그림, 대중가요, 뮤지컬이고, 「소나기」 이후의 내용을 상상하여 만든 영화이다.<sup>9)</sup>

---

9) 이상의 심화·확장 활동이 한국어교육 학습자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다. 따라서 교수가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림2] 이만익의 '소나기'(1998)



[그림3] 예민의 '산골 소년의 사랑이야기'(1992)



[그림4] 뮤지컬 '소나기'(2004)



[그림5] 영화 '소나기는 그쳤나요?'(2004)



- 구인환·박인기·우한용·최병우. 2012. 『문학교육론』(제6판). 서울: 삼지원.
- 김정선. 2004.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활용의 현황과 과제”. 『국어교육연구』 14, 213-233.
- 김영옥. 2012. “황순원의 단편소설 「소나기」를 활용한 한국 문학 교육-중국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제22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455-466.
- 김정자. 2014.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중철. 1997. “황순원의 소나기에 대한 영상적 기법 고찰”. 『한민족문화연구』 2, 1-19.
- 박기범. 2001. “영화의 문학교육적 수용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기범. 2007. “소설과 영화를 통한 서사교육 내용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남일. 2007. “리터러시 관점에서의 〈소나기〉 연구”. 『한국학연구』 26, 209-231.
- 양수중. 2002. “영상매체를 활용한 소설 교수 학습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지혜. 2013. “국외 한국어교육의 문학 교재 구성을 위한 언어학습자문학 연구”. 『새국어교육』 95, 269-302.
- 윤여탁. 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 윤영. 2008. “영화를 활용한 소설 교수-학습 방안 연구-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9(1), 1-28.
- 윤영. 2011. “한국어 교육에서 영화를 활용한 소설 교육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영. 2012.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문학 교육 연구”. 『한국어교육』 23(3), 195-229.
- 이기성. 2003. “장르통합적 방법을 이용한 한국어 문학교육: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 169-199.
- 정덕재. 2006. “소설 텍스트의 TV 드라마 변용 소고-HD TV문학관 〈소나기〉를 중심으로”. 『한남어문학』 30, 153-183.
- 최미숙·원진숙·정혜승·김봉순·이경화·전은주·정현선·주세형. 2012. 『국어교육의 이해』(개정판). 서울: 사회평론.
- 한국국제교류재단. 2007. 『해외한국학백서』. 서울: 을유문화사.

- 한승옥. 2008. “미국에서의 한국 현대문학 교육”. 『한중인문학연구』 25, 27-46.
- 황인교. 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의 가능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 409-434.
- 황인교·김성숙·박연경. 2004. “집중적인 한국어 교육과정의 문학 교육-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문학 수업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9, 231-280.
- Carter R. and Long M. N. 1991. Teaching Literature, NY: Longman.
- Collie J. & Slater S. 1987.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opp, R. H., Yopp, H., Yopp, S. H., & Yopp, E. R. 1996. Literature-based reading activities., MA: Allyn & Bacon.

〈자료〉

- 윤여탁·윤석민·조현일·유영희·김정우·송진한·김주익·김나영·김수학·윤구희·강용철. 2011. 『중학교 국어 2-1』. 서울: 미래엔 컬처 그룹, 19-33.
- 유튜브([http://www.youtube.com/watch?v=y\\_iybCNf3bU](http://www.youtube.com/watch?v=y_iybCNf3bU))
- HDTV문학관 홈페이지(<http://www.kbs.co.kr/drama/hdtv/sonaki/>)

## **A Study on Using Films to Teach Novel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 in the case of <Sonaki>**

Park, Ki-Beom (Jeon-Ju University)

This study is to help Korean language students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ntent, language and culture of the novels read in class by actively using films.

Korean language education has been improved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and the purpose of learning Korean has been diversifying. However, despite those changes and many studies on approaches and methods to teaching literature, teachers in the field still use literature as a subsidiary means to help understand the language or the culture, not going further to instill a deep appreciation of literature. Hence, this study suggests 'using films to teach novels' as a way to make learners actively read literature and deepen their experience of the literature.

As a method to help learner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understanding of novels, language and culture, this study uses 'narratives' that exist in both novels and films. If understanding of characteristics of novel and film narratives precedes reading or viewing of those works, learners can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both novels and films. Learners also can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culture and society through activities that compare the narratives in novels and films.

A series of activities such as reading novels and watching films and comparing, analyzing, and discussing their respective narratives can increase learners' language ability as well. Furthermore, through narratives of novels and films which express stories in different ways, learners can expand their indirect experience and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world and life.

In Chapter 2, the conditions and aims of current Korean literature education are discussed.

In Chapter 3, the advantages of using films to teach novel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 suggested.

In Chapter 4, the methods of using films to teach novel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 presented.

In Chapter 5, An example of teaching Whang Sun-Won's Sonaki (1953), by using TV drama adaptation of the same title made by KBS (2005) are presented in detail.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literature education, teaching novels, narratives, novel 「Sonaki」, TV Drama 「Passing rain」